

호남이 만든 꽃놀이패 대선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위는 날, 연달아 영화 두 편을 봤다. 오전에 본 영화는 점점했고 오후에 본 영화는 아름다웠다. 홍상수 감독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 그리고 마이클 래드포드 감독의 '일 포스티노'(The Postman, 1994).

홍 감독의 영화에 대한 느낌은 순전히 주관적이지만 아마 어떤 선입견도 작용했을 것이다. 유부남 감독과 바람이 난 여배우의 자기변명 아닐까 하는. 결국 그런 예상은 그다지 빗나가지 않았다.

래드포드 감독의 '우편배달부'는 과연 들던 대로 깊은 울림과 짙은 여운이 있었다. 이탈리아 작인 섬의 아름다운 풍광. 20세기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추앙받는 파블로 네루다.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배달하며 시(詩)에 눈을 떠가는 어부의 아들 마리오.

두 영화에서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시(詩)가 나온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제목 자체가 윌트 휘트먼의 시('On the Beach at Night Alone')에서 따온 것이다. 박종하의 시 '갑나무'

를 낭송하는 장면도 보인다.(시의 내용이 무엇이었던지는 벌써 생각이 나지 않으니 나이 탓을 해야 하나.)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나 아파요. 하지만 낮고 싶지 않아요." 마리오가 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순전히 아름다운 처녀 베아트릭제 때문이다. 연애시를 보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것이다. 어느 날, 우편배달부 청년 마리오가 묻는다. "시가 뭐냐?"고... 네루다가 대답한다. "메타포(Metaphor)!" 그리고 덧붙인다. "메타포(은유)란 뭐랄까,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하는 거지."

추향이와 보조 타이어

네루다의 말처럼 시는 메타포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 알고 있는 그 은유는 바로 '낮익은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적 발견'이기도 하다. "내 마음은 호수요" 여기에서 '호수'는 비유되는 대상인 원관념('내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돕는 보조관념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는 비유도 마찬가지다.

요즘 나의 관심을 끈 것은 정치판에 등장하는 은유다. 예를 들면 홍준표 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요"고 한 발언 같은 것이다. "동지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내는 나비의 날갯짓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이재명 지

의 패배 연설이 화제가 된 것도 비유를 적절히 잘 활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국민 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일종의 보조 타이어로 생각하고 지지해 준 것"이라고 한 발언이다. 이번 대선은 누가 되든 야당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할 때 '보조 타이어'라는 비유는 그들 입장에서 매우 적절해 보인다.

그렇다고 그런 말을 들은 국민의당이 가만있을 리 없다. 우리가 보조 타이어라면 "문 후보는 핑크 난 타이어, 페타이어임을 자인한 풀 아나나"며 바로 맞받았다. 은유를 매개로 한 재미있는 난타전이다.

하지만 새 타이어인지 낡고 많은 타이어인지의 차의 주인인 국민이 알아서 판단한다. 이대로는 도저히 달릴 수 없다면 판단해서 페타이어를 교체한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다.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에 성능 좋은 타이어를 달아야 할 텐데 금방 핑크 난 타이어만 도처에 널려 있다면 큰일 아닌가.

타이어가 좋아야 자동차도 잘 달린다. 타이어 얘기를 하다 보니 자동차 운전과 관한 유머 하나가 떠오른다. 이승만은 초보운전, 박정희는 과속 운전, 최규하는 대리운전, 전두환은 난폭운전, 노태우는 졸음운전, 김영삼은 음주운전이었다. 김대중은 안전운전, 노무현은 모범운전인데 이명박은 역주행을 했다. 그리고 박근혜는? 무면허운전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떤 운

전을 하게 될까. 과연 '베스트 드라이버'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김 틈도 없음을 만큼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된다. 불과 '서른' 날 정도만 지나면 우리는 비로소 '설움' 세상을 떠나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 혹시 "좋은 대통령"이라고 인정받는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일까? 황상민 전 연세대학교 교수는 "대통령은 연예인과 같은 과(科)여서 인품이나 공약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이 그 사람을 보는 이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지난 4월, 광주일보 제5기 리더스아카데미 강연)

대세론 가고 대체론 오나

그는 "어떤 정치인에게든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리고 볼 수 있는 것만 본다"는 말도 했다. 결국 "좋은 대통령을 만드는 것도 나쁜 대통령을 만드는 것도 대통령 자신이라고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아 놓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공약 등을 잘 살펴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만큼 마음을 크게 졸이지 않아도 될 것 같

다. 누가 되든 10년 만의 정권교체가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모두 여섯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최근 대선 판도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양강(兩強) 구도로 수렴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대문'(아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며 철옹성처럼 굳었던 '대세론'이 흔들리면서 이제 '대체론'이 부상하고 있다. 마치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인 양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로 이미지 변신을 꾀한 안철수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장미 대선'은 누군가에게는 '꽃피는 봄'이요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봄'이 될 것이다. 이들 중 누가 꽃 피는 봄을 맞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즐거운 '꽃놀이패'인 것만은 확실하다. 지난 총선을 통해 이런 선거 구도를 만든 것도 다름 아닌 호남 사람이었다.

이번 선거 역시 호남의 민심을 잡는 이가 최종 승자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사람은 나비와 같아서 잡으려 하면 달아나고 가만히 있으면 손등에 와 내려앉기도 한다. 하지만 호남 민심은 가만히 있어도 날아와 손등에 내려앉는 '나비'가 아니다.

따라서 호남의 마음을 열기 위한 이들 후보들의 보다 적극적인 구애와 그에 걸맞은 실천은 여전히 절실하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속스러워 했던 그 순진한 마리오가 베아트릭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은유를 배우고 시를 배우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병우 '레이저 눈빛' 사라졌네

檢, 피의자 신분 세 번째 소환 정면 응시하거나 바닥 내려봐 "대통령님 일 참담한 심정"

지난해 검찰과 올해 특검에 이어 6일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서는 예전의 '레이저 눈빛'과 '의기양양한 목소리' 모두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검은색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포토라인에서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을 이어갔다.

우 전 수석은 질문을 받는 내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바닥을 내려다봤다. 기자 쪽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작년 11월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 지난 2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모두 질문하는 기자를 몇 초간 내려보아 이른바 '레이저 눈빛'으로 태도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왼쪽 사진은 지난해 11월 6일 검찰에 처음 소환될 때 질문하는 기자를 내려보던 모습. /연합뉴스

상' 이미지를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목소리도 힘이 빠진 상태였다. 우 전 수석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혀 바로 옆에 선 기자에게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우 전 수석은 '세 번째 소환인데 하실 말씀 더 없느냐'는 질문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언급했다. "대통령님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고 말할 때는 생각이 많아진 듯 말을 잠깐씩 멈췄다. 말을 마친 후에는 눈을

감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중반 의혹 제기 이후 수개월째 수사를 받느라 최근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다소 지쳤다든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현재 수사 초점이 맞춰진 직권남용 혐의에도 앞서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수사한 개인비리 혐의까지 더해 우 전 수석비서관 일가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4·19 혁명 도화선 김주열 열사의 장래희망은?

교사 아닌 '은행 사장'

남원문화원, 친필 메모 발견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의 장래희망이 '은행 사장'이었다는 내용의 친필 메모가 발견됐다.

남원문화원은 1959년 김 열사가 금지중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동문 친구에게 남긴 졸업 축하 글이 담긴 책자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열사의 글은 이 책자 16번째 장에 있다. 그는 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자신의 주소와 생년월일, 희망을 적은 뒤 "졸업을 축하한다. 사막을 걸어간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날 때를 생각하여 지금은 헤어졌을지라도 장래 또 한번 만나보세. 군의 성공을 바라며"라고 썼다.

장래 희망은 '은행 사장'이라고 밝혔다. 남원문화원은 "김 열사의 꿈은 그동안 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가 마산상고에 진학한 동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김

열사는 자신의 별명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김 열사는 마산상고 1학년이던 1960년 3월 15일 당시 자유당 장관의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마산시민 부정선거 규탄대회에 참석했다가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최후탄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했다.

이번에 발견된 책자는 당시 김 열사의 금지중학교 동문 친구였던 박병금 씨가 졸업을 앞두고 김 열사를 비롯한 친구와 후배들에게 받은 졸업 축하 메모 66매를 묶은 것이다. 일실군 오수면에서 추억박물관을 운영하는 박재호 씨가 자료를 정리하다 발견해 남원문화원에 알렸다.

김현식 남원문화원 사무국장은 "김 열사 친필이 담긴 유품은 많지 않은데 이 책자는 매우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2025년까지 전국 도로변에 복합충전휴게소 200곳 설치

2025년까지 전국 도로변에 수소차·전기차·LPG(Liquefied Petroleum Gas·액화석유가스)차 등 친환경차량을 위한 복합충전휴게소 200곳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와 환경부·산업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

이 행사는 국회 내 연구단체인 신재생에너지포럼(의원 43명 참석, 대표의원 이원욱·전현희 의원) 분과인 수소경제분과와 국토부·환경부·산업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최초 수소 관련 정책 토론회다.

자타 공인 '수소 마니아'인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앞당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지금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 타임으로, 충전인프라 구축·기술 개발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처 등을 위해 국내외 수소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한 의류점 임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임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1861㎡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치평동 3층 상가점포 410㎡ 매5억(보5000만, 월220만 포함)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1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1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1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지

- 용전동 생산녹지, 대로접 9,400㎡ 매 48억원
- 화정동 대지 967㎡ 신세계 백화점 부근 매 50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접 990㎡ 5억원
-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늘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풍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수원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농성동 건물매매

- 농성동 450번지 4층 건물
- 대지165㎡ 건물488㎡
- 보 1700만 / 월 165만(임대중)
- 광고효과 최상
- 매매 4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